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Leisure

Tango

'너에게 나를 보낸다'

■ 사진/이진옥 기자·글/장성배 기자, 취재협조/탱고 시덕선

탱고의 운명은 상대적이다. 파트너 사이의 교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혜안(慧眼)이 곧 탱고의 작동원리다. 너의 생각이 손끝을 타고 나에게 전해져 상체와 허리, 골반을 지나 발 아래로 닿을때 비로소 하나의 동작이 탄생한다. 탱고의 공간은 그래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대화로 가득하다.



탱고는 파트너간의 신체적 교류가 쉼 없이 이어진다. 마주잡은 손, 대칭을 이루는 어깨선, 서로 엇갈린 다리, 닿을 듯 밀착된 가슴, 상대방을 응시하는 눈길....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또한 상체와 허체의 움직임이 뚜렷이 구분돼 여성의 경우, 하이힐과 스타킹에 신경을 쓴다.

탱고는 '영원한 미완성의 춤'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커플댄스와 달리 정형화된 룰이 없다. 재즈처럼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해 '완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작의 구성을 외우는 일도 없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새로운 동작과 테크닉을 창조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탱고는 똑같은 춤을 두 번 출 수 없습니다. 정해진 스텝도 없고,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춤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테크닉이나 분위기는 다릅니다. 최근 트렌드는 밀착하기보다는 오픈시켜 거리를 두는 편이죠." 아르헨티나 이민 1.5세대인 탱고 강사 정응준 씨의 이야기다. 미완성의 춤이면서도 탱고는 완성을 지향한다. 남녀 파트너가 탱고를 추면서 합일에 이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서로간의 교감이 물 흐르듯 원활해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동작이 탄생한다. 서로의 감정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스텝이 엉키고 상대의 발만 밟다가 끝나버린다.



그래서일까, 배려는 탱고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호응할 때 비로소 한편의 작품이 완성된다. 파트너와 교감을 나누는 데 말은 필요 없다. 눈빛도 마찬가지다. 탱고는 상대방 오른쪽 귀에 시선을 두고 추기 때문에 서로 눈빛을 나누는 일이 별반 없다. 서로의 생각은 오직 몸을 통해 전달된다. 서로 맞잡은, 상대의 어깨와 허리를 감싼 손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움직임과 엇물리는 발의 자세를 통해 생각이 감지된다.

배려는 특히, 남성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다. 탱고는 남성이 춤을 이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선 탱고 추는 남성을 탱게로(Tanguero), 여성을 탱게라(Tanguera)로 부르는데 둘의 역할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음악을 해석하고, 동작과 전체 구성을 조율하는 일은 전적으로 탱게로의 몫이다. 탱게라는 탱게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다. 남성은 춤을 리드해야 하는 만큼 익혀야 할 것이 더 많다. 여성이 특정 동작을 구사해 좀 더 춤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을 때 남성은 그것을 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년은 밀착이 많도록 플로어를 돌아야 여성을 리드할 수준이 된다고 한다. 탱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셈이다. 반면, 탱게라는 3개월이면 춤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를 대부분 익힐 수 있다. 탱고 입문 과정은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는 모습과 닮아 있다. 대다수 문화권에서 남성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여성보다 많은 법이다. 탱고만 놓고 보면, 남성은 여성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그것에 맞춰주기 위해 기나긴 수련이 필요하다.

“어떤 파트너와 만나더라도 탱고를 추는 순간만큼은 상대를 최대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호흡을 맞출 수 없죠. 순간에 충실한 것이 바로 탱고입니다.” 탱고에 입문한 지 2년째인 한 탱게로의 얘기다. 남성이 형식상 춤을 리드하지만 어쩌면 탱고의 실제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 마음대로 동선을 이끄는 용감무쌍한 탱게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다가는 혼자 즐겨도 되는 힙합이나 디스코로 전향해야 한다. 가정에서나 플로어에서나 독재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영원한 미완성의 춤

탱고의 고향은 남미 아르헨티나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 그 뿌리를 둔 서민적인 춤이다.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흑인들이 가장행렬에 사용하던 음악과 쿠바 춤곡 하바네라가 결합해 탄생했다. 19세기 중반 신대륙으로 모여든 이민자들과 도시 빈민들이 탱고를 통해 향수와 삶의 애환을 달렸다고 한다. 젊은 이민자들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는 춤보다 음악으로 통한다. 탱고 가수나 밴드는 많지만 직업 댄서는 드물다. 특히, 반세기 전 탱고에 클래식을 접목시키며 등장해 탱고 부흥을 이끈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피아졸라를 비롯해 탱고 음악은 서정적이면서도 열정을 담고 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나 인생에 대한 반추가 주로 가사를 이루는데, 아코디언과 비슷한 반도네온이 빛어내는 선율이 흐느끼듯 애잔해 감성을 자극한다.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 몰입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인지 탱고 음악에 젖어 플로어를 돌아보면 옛 흑백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상상에 빠져든다. 쭈

2007 Spring Tango Festival

국내 대표적인 탱고 동호회인 탱고 시덕션(<http://cafe.daum.net/tangoseduction>)이 4월 1일부터 8일까지 마련한 봄맞이 탱고 축제다.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 커플 2팀을 초청해 공연과 워크숍을 연다. 오프닝은 4월 1일 서울 압구정동 탱고 전용홀에서 이루어지며, 4월 7~8일에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파티가 곁들여진 대규모 탱고 공연이 개최된다. 02-3446-8264

[▲ top](#)